

## 뜻대로 안 되는 계획

세상의 계획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얼마 전 동부에 사는 한 가정 온 식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문제는 양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안타까웠다. 그 가정은 지난 수년 동안 함께 여행하기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동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부로 와서 알래스카로 가는 배를 타고 여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 여행을 위하여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이 일하는 곳에서 휴가를 내며, 하던 사업도 달기로 벌써 소문을 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위하여 테스트를 받은 결과 아버지가 얼마 전에 낚시를 가서 친구에서 옮겨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성 판정을 받아 온 가족이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금전적인 손실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일 년에 한 번 있는 휴가도 집에서 격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위로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그 어떤 것을 하기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새삼 깨닫는다. 어떤 때에는 그냥 묻혀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팔자 소간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 라고 시인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 시인은 인생의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방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잘못을 다시 범치 않으려고 한 것이다.

어쩌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잘 되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고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동부에 있는 그 가정도 하나님을 꿈쩍이 사랑하는 가정이라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행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었을 은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 알 수 없는 세상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